

[3D커버글라스 글로벌 선도기업 '제이엔티씨', 코스닥 입성 초읽기]

(주)제이엔티씨, 증권신고서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 돌입

- ▶ 오는 2월 11~12일 수요예측, 17~18일 청약 진행 후 2월 코스닥 상장 예정
- ▶ 전세계 모바일용 3D커버글라스 시장선점 + 글로벌 TOP 고객사 다변화로 고성장 지속
- ▶ 스마트폰에 이은 차량용 3D커버글라스 사업 본격화 및 미래형 디스플레이로 제2의 도약 목표

<2020-01-14> 전세계 3D커버글라스 최강자 제이엔티씨가 코스닥 입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3D커버글라스 및 커넥터 전문기업 제이엔티씨(대표 김성한)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이엔티씨는 이번 상장을 위해 11,000,000주를 공모한다. 공모예정가는 8,500원~10,500원, 공모 예정금액은 935억 원~1,155억 원이다. 2월 11일~12일 양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17일~18일 청약을 거쳐 2월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은 신한금융투자과 유진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제이엔티씨는 커넥터사업을 시작으로 독보적인 원천기술과 그룹사간 시너지 극대화로 끊임없는 성장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세계 최초 3D커버글라스 양산에 이어, 2019년 스마트폰용 키리스 양산 성공 및 2020년 차량용 일체형 3D커버글라스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여기에 고기능 고사양 박막글라스 선행기술을 통한 폴더블, 롤러블 UTG 시장진입과 미래형 디스플레이 시장 선도를 가속화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특히, 전세계 스마트폰 패러다임을 견인하는 선도적인 기술력으로 글로벌 TOP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하면서 외형성장과 질적성장을 동시에 이뤘다. 2019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은 2,249억 원으로 3분기만에 지난 2018년 온기 누적매출액 2,294억 원에 근접하는 외형을 키웠고, 2019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26억 원으로 지난해 온기 누적 영업이익인 255억 원을 크게 상회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9년 4분기 결산이 보태지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

이처럼 괄목할 만한 경영성과의 배경은 ▲독보적인 커버글라스 원천 기술 확보 ▲세계 3대 디스플레이 메이커 및 글로벌 매출처 다변화 ▲핵심설비 내재화 기반 생산성 및 수율 확보 ▲베트남 생산기지 구축에 따른 글로벌 생산거점 확보 및 대규모 수주 대응 체제 완성으로 요약된다.

특히 올해는 OLED 공급확대에 따른 글로벌 디스플레이 및 글로벌 스마트폰 고객사 증가와 함께 신규 빅 마켓인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시장 진입 가속화, 미래형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 가시화로

지속성장이 예고된다.

이에 대해 제이앤티씨 김성한 대표이사는 “이번 상장은 제이앤티씨가 글로벌 No.1 기술선도 기업으로 성장을 가속화해 미래 산업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모바일용 및 차량용 3D커버글라스 시장 선점을 필두로 폴더블, 롤러블용 UTG와 4차 산업 혁명의 IoT용 3D커버글라스 시장 등으로 확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한 포부를 전했다.

#####

<참고자료>

[제이앤티씨 IPO 일정(예정)]

증권신고서 제출	2020년 1월 13일
수요예측	2020년 2월 11일 ~ 12일
청약	2020년 2월 17일 ~ 18일
코스닥 상장	2020년 2월 내

공모 주식수	11,000,000 주
주당 공모가액	8,500 원 ~ 10,500 원
공모 예정금액	935 억 원 ~ 1,155 억 원
공모 후 주식수	57,848,466 주
예상 시가총액	4,917 억 원~6,074 억 원